멕시코 선교동역자 여러분께 올립니다.

저희들이 고국에 돌아와 쉼을 갖게된지 수개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몇 교회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고, 고국의 산하를 여행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힐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제 2년 남겨둔 사역을 어떻게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할지를 고심하며 준비중에 있습니다. 선교센터를 비롯하여 몇몇 선교자산들은 이미 법인화하여 등록해 두었으며, 저희들을 대신하여 일할 이지민/ 김예은 선교사님도 이미 현지에 도착하여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척되어진 많은 교회와 저희들로부터 배움을 받았던 교회 리더들이 저희들을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영적인 영향하에 있기를 원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교파로 일하였던 저희들은 그동안 1,200여명의 일꾼들을 신학교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가르쳤고, 각자 1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척된 교회들, 그리고 교육된 일꾼들을 원하는 교단으로 가도록 권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저가 개척하였던 100여개의 교회들과 일꾼들은 여전히 저희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국내사역을 하는 중에도 총노회라도 만들어서 저들을 엮어줄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신학과 신앙의 표준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교육하고, 외연을 확장해 가는 일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님을 실감합니다.

저희들이 국내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SNS나 온라인을 통해서 선교지와 소통하며 현지 교회들과 소통하고 또 가르침이나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매주 칼럼이나 요약설교를 보내어서 목사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선교지에서는 좋은 반응을 보내주어 감사합니다. 은퇴후에라도 얼마든지 유튜브 등을 통해서 강의하고, 할 수 있으면 일년에 한두번씩 선교지를 방문하고 신학교에서 강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간 국내에서의 거처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차량과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내년 2월초 경에 선교지로 돌아갈 예정이며, 11월 29일에 종합검진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별문제 없이 선교지로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방문치 못한 교회 중에 연락 주시면 찾아뵙고 선교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락처 010-2732-0661
카톡 : 최승열
페이스북 : 최승열

2022. 11. 17

멕시코 선교사 최 승열/ 강 은희 드림